

## 전남대 사시 19명 합격

전국 10위...여성 합격자 38% 사상 최대

올해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사상 최대를 나타낸 가운데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인 최종 합격했고 자매가 나란히 동시에 합격하기도 했다. 또 2차 합격자 가운데 면접을 통과하지 못한 탈락자가 1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20면>

법무부는 25일 오전 시각장애인인 최영(27)씨 등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자 1천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전남대는 지방대학으로는 부산대에 이어 모두 19명이 합격 전국 대학순위 10위를 기록했으며, 이중 8명은 여성 합격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으며 송민정(28)·지연(24) 자매는 사법시험 사상 자매로는 최초로 동시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고 겸활 달린 직원이었던 정영미(35·여)씨도 법조인의 꿈을 이뤘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승일(29)씨가 2차 시험 평균 56.96점을 얻어

여 수석 합격했고, 고려대 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우철(21)씨와 숙명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이경숙(48·여)씨가 각각 최연소 및 최고령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더욱 두드러져 여성 합격자 수는 지난해 354명보다 28명 늘어난 382명으로 38.01%를 차지해 역대 최다를 나타냈다.

대학교별 합격자 수는 서울대 275명(27.39%), 고려대 182명(18.13%), 연세대 104명(10.36%), 성균관대 77명(7.67%), 이화여대 63명(6.27%), 한양대 53명(5.28%)으로 상위 6개 대학이 754명으로 전체 75.02%를 차지했고, 합격자 1명 이상 배출 대학은 45개 대학으로 집계됐다.

한편 2차 합격자 등 1천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면접에서는 심층 면접을 받은 30명 중 10명이 '법조인 부적격자'로 최종 불합격했다.

/정상필기자 camus@·연합뉴스



“너희들 재롱에 힘나는구나”

광주시 남구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한 ‘2008 독거노인 합동 위안잔치’가 25일 오전 광주시 남구 백운동 프리도호텔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이 어린이들의 공연을 보며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개인정보 무단 사용 5년 이하 징역

개인정보보호법 의결...목욕탕 CCTV 설치 못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개인도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당초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인터넷상 본인 확인수단으로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처럼 개인 생활을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제정안은 이를 여기며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

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빠르면 내년 하반

기로 예상된다.

제정안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교과부는 국가 업무 지방 이양에 따라 국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해 예산 및 인사권 모두를 시·도 교육감에게로 넘긴다는 입장인 것에 반해,

교대족은 부설초의 연구 및 실험학교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국립대 부설학교가 국

립학교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교사양성대학의 교사교육 연구

학교 ▲교원실습학교 ▲대학 교수의

초등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교류학교

▲예비교사의 수업 지도 효과 제고

등의 기능 수행을 꼽았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25일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학교의 공립전환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령과 시도 조례를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으로 전환되면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되고 예산 지원도 중앙 정부가 아닌 해당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학교 건물, 시설 등 국유재산은 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겨지고 교원 임용권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공립 전환이 추진중인 광주교대 부설초교는 1938년 광주사범부속소학교로 문을 염 뒤 올해 70주년을 맞았으며, 목포교대 부설초교는 1957년 개교했다. 또 전남대 사대부종과 사대부교는 각각 1976년과 1977년 개교해 그동안 1만명 안팎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최재호기자 lion@

교육과학기술부가 교대 부설학교 13곳을 포함한 전국 국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 43곳(학생수 3만837명)을 공립학교로 전환하기로하자 전국 교육대 총장협의회(협의회)에서 반대성 명서를 내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공립전환 대상 학교는 광주교대와 목포교대 부설초교, 전남대 사범대 부설 중·고교 등 4곳이다.

교과부는 국가 업무 지방 이양에 따라 국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해 예산 및 인사권 모두를 시·도 교육감에게로 넘긴다는 입장인 것에 반해, 교대족은 부설초의 연구 및 실험학교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국립대 부설학교가 국립학교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교사양성대학의 교사교육 연구학교 ▲교원실습학교 ▲대학 교수의 초등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교류학교

▲예비교사의 수업 지도 효과 제고 등의 기능 수행을 꼽았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25일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학교의 공립전환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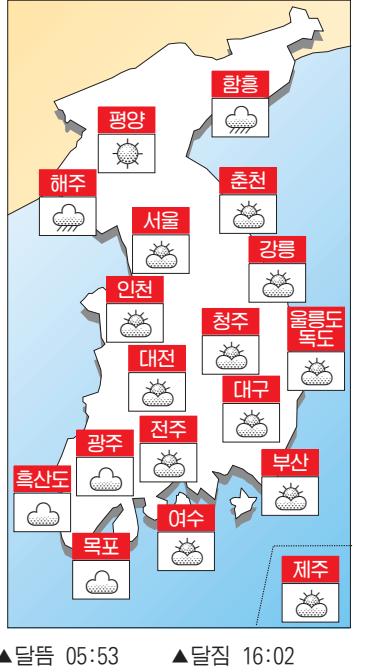
‘불황 구름’ 언제 걷하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점차 구름이 많이 키겠다.

11월 26일

(음 10월 29일)

◇전국날씨



서해남부  
안나다=북서→서풍과고 0.5~1.5m  
만나다=북서→서풍과고 1.0~2.0m

남해서부  
안나다=북서→서풍과고 0.5~1.5m  
만나다=북서→서풍과고 1.0~2.0m

목포 밀물 00:39 13:27  
물밀 18:46

여수 밀물 08:18 20:07  
물밀 14:21

▲해뜸 07:18  
▲해침 17:21  
▲달뜸 05:53  
▲달침 16:02

기상연예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7(목)	28(금)	29(토)	30(일)	12/1(월)	12/2(화)
날씨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최저/최고	6/11	1/10	0/9	-1/12	2/12	3/11

산~여수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심현윤 코레일 사장직무 대행은 “세계 철도시장에 국내 철도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국립 초·중·고 공립 전환 논란 가열

교과부 43곳 선정...교대총장협 중단 촉구 성명

교과부는 국가 업무 지방 이양에 따라 국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해 예산 및 인사권 모두를 시·도 교육감에게로 넘긴다는 입장인 것에 반해, 교대족은 부설초의 연구 및 실험학교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국립대 부설학교가 국립학교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교사양성대학의 교사교육 연구학교 ▲교원실습학교 ▲대학 교수의 초등교육 이해 증진을 위한 교류학교

▲예비교사의 수업 지도 효과 제고 등의 기능 수행을 꼽았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25일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학교의 공립전환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령과 시도 조례를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으로 전환되면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되고 예산 지원도 중앙 정부가 아닌 해당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학교 건물, 시설 등 국유재산은 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겨지고 교원 임용권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공립 전환이 추진중인 광주교대 부설초교는 1938년 광주사범부속소학교로 문을 염 뒤 올해 70주년을 맞았으며, 목포교대 부설초교는 1957년 개교했다. 또 전남대 사대부종과 사대부교는 각각 1976년과 1977년 개교해 그동안 1만명 안팎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교과부는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역방향 좌석을 없애고 좌석 간격이

기존의 KTX보다 넓어진 국산 신형 고속열차 KTX-II(가칭)가 25일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KTX-II는 내년 하반기 호남선과 전라선 등에 투입된다.

KTX-II는 유선형 설계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사용해 차체 무게를 줄였다. 승객 수요에 따라 10량 또는 20량으로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좌석 간격도 930mm에서 980mm로 50mm 넓어졌고, 전 좌석에 회전 시스템을 채택해 역방향 좌석의 불편함을 덜었다.

코레일은 KTX-II를 시험 운전을 거쳐 내년 하반기 호남선을 시작으로 전철화 공사가 진행 중인 전라선(익

산~여수)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내년 설 연휴(1월 23~28일) 철도승차권을 다음달 3~4일 예매 한다고 25일 밝혔다. 호남·전라선 승차권은 예매 이틀째인 4일 판매된다.

임시열차를 포함한 설 연휴 열차 시간표는 다음달 2일부터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9급 이론 출수반 을 스타팅 7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 234-0234

개강 12월 1일  
공무원 합격 암도적 1위  
최단기 절수업그레이드 필수과정  
주부/대학생/직장인 위한  
9급 야간 특설반

교육행정/농업직/기술직/ 사회복지/ 출판직

교강 12월 1일(월)

일반 행정직/ 교육행정직/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출판직/ 기술직

소방직 5년간 8,359명 채용! 소방직 단독반 개강: 11월 3일

2008년 동부고시학원 국가직, 광주/전남/서울/경기 지방직 합격자 면접특강 장면

공무원 합격률 1위!!!! 학원만족도 1위!!!! 강의만족도 1위!!!!

</div